

하박국네 이야기 2016. 2

E-mail : 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070-4685-1690(인터넷 전화)

(855)096-345-5024 / 017-367-316 (캄보디아)

카카오ID : kahh1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씨티은행 가형호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 : 3, 5)



2016년이 시작된지 어제께 같은데 벌써 2월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이곳은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하여서 날씨가 시원해야 할때도 날씨가 무덥다가 지난주 몇일은 시원한 날씨가 되다가 다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현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적인 갈등가운데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신학교 교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된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밀을 말로 설명을 한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행사 (12. 19)

이곳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 행사를 전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에서는 성탄절이 아주 생소한 것이기도 하고 그저 서방에서만 행해지는 행사로만 그냥 먹고 노는 날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인식되어진 이 나라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도 보충수업을 하기에 아이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가 준비한 성탄절 행사에 모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도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게 됩니다.



영어공부와 복음증거



올해부터 성경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어교재 ‘Special me’를 가지고 영어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말씀도 함께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책의 장점이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완전히 암송까지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교재여서 교재비가 부담을 되기는 하지만 신앙과 질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제 노트북을 들고 성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음악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래를 거의 악보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고 음감도 많이 떨어져서 몇 번이나 반복을 해도 정말 음을 제대로 내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음악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팀 사역



지난주에 단기팀이 와서 일일학습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후에 그리기, 만들기, 운동회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비누방울로 천지창조를 이야기 하면서 하는 포퍼먼스는 그야말로 아이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교사들이 앞으로 못 나가도록 제제를 했지만 비누방울을 잡기 위해 너무 앞으로 밀고 나오는 바람에 비누방울을 만드는 물그릇을 밟아서 다 어져서 중간에 중단이 되는 아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큰섬(꺼쓰편)에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섬의 대부분이 절안에 학교가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꺼쓰편 중앙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견달꺼쓰편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1959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곳은 우기철이 되면 3달 동안 물이 차서 휴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꺼쓰편 섬의 절반이상 물에 차기 때문에 집집마다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모슬렘 텀플과 절이 있어서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승리하고 복음의 전진이 있으리라 믿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동역자 세 자녀



이제 세 아이들 모두 현지인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 했는데 시험성적을 받아보고 나서 아직도 이곳 언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20%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언어에 능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이 속히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아이 모두 이에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양치질을 매일 하는데도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고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1. 사역을 위해

★깜뽕참에 있는 큰섬(꺼쓰편, 꺼우판) 마을과 꺼트메이 섬 마을: 두 곳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6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를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간단히 지붕과 바닥공사만 하여서 예배장소와 평소 때는 동네 어르신들의 쉼의 장소와 어린이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

★다란 청년을 위해: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며 거듭남의 비밀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학업에도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소서.

★4월중순후로 토요일 예배를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잘 준비되어지며 예배에 아이들과 어른들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소서. 학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잘 마련되어지며 학사를 할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깜뽕참 지역에)

2.성령 충만을 위해

매일 주님과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3 가정을 위해

하은, 하원, 하영이의 현지 학교에 더욱더 잘 적응하게 하며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소서.